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18 06
제8호

행복한 여름나기,

바다야 부탁해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가장 좋은 CPR은




알리고
Rligo AED 트레이너® T200

- ▶ 패드 부착 위치 LED 표시 및 교환용 패드 사용
- ▶ 모든 커넥터 연결방식 적용
- ▶ 일시정지 및 음량조절 기능
- ▶ 다국어 지원
- ▶ 교육에 편리한 전용 리모컨
- ▶ AHA '2015년 가이드라인' 적용 제품



누르고
Nurugo CPR 마네킹®

- ▶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체에 가까운 2중 관절 목구조
- ▶ 심폐소생술 품질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 기능
- ▶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 ▶ 더 정확한 AED 패드 부착 기능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A KOREA MAGAZINE

2018 06
제8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8년 06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너를 사랑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
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 04 칼럼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앞서 보존과 정화에 노력할 때다
_ 한국해양구조협회 민흥기 이사장
06 총재동정 신정택 총재, 글로벌리더 25인에 선정

MARSA News

- 07 본부 뉴스 1) 2018 국제해양안전대전
08 2) 북태평양 6개국 대규모 연합훈련 성료
09 3)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협력기관 현장 합동훈련(FTX)

지부·지역대 뉴스

- 10 1) 울산지부 협회장 이·취임식
11 2) 전남동부지부 특수구조대 발대식
12 3) 포항구조대, 캄보디아 해군특수부대 스쿠버 및 인명구조교육
13 4) 전국지부 및 구조대 수색구조활동
14 5) 부산지부,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 개최
15 6) 경주구조대, '선덕여왕배 여자야구대회'에서 심폐소생술 흥
보관 운영

MARSA Story

- 16 안전을 부탁 海 부산구조대_청소년 선상안전체험교육
18 환경을 부탁 海 울산지부_해양환경정화활동

MARSA Info

- 21 국내뉴스 1) 올해에는 1인당 1가지 이상 해양레저 배워보자!
22 2) 이번 여름휴가, 어느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까?
23 3) 올해 3만 명의 어린이·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가르친다
24 4)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훈선은 이제 그만!
25 5)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피해서 쉬엄쉬엄 가세요!

MARSA Notice

- 26 협회교육안내 1)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28 2) 2018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29 3) 2018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30 협회후원안내

| 칼럼 |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앞서 보존과 정화에 노력할 때다.



민 홍 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지난 5월 31일은 23번째 맞이하는 ‘바다의 날’로써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돌이켜 보면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바다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당시 김영삼 정부는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1996년 5월 31일 부산항에서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그해 8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해운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매년 해양수산부의 주도아래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해양사상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다의 날은 우리 해양수산인 모두에게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필자는 특히 2013년 제18회 바다의 날에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가 있기에 매년 바다의 날이 오면 그 감회가 새롭다.

금 번 바다의 날, 이낙연 총리의 기념사 중에 특히 필자의 눈길을 끄는 부문은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대목이다. 우리가 바다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한 해양에서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써 아무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대자연의 불가항력적 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깨끗한 바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수년 전, 북태평양에 거대한 해양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 해양연구기관인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Ocean Cleanup Foundation)은 이 쓰레기 섬이 점점 확대되어 현재 약 155만km²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7배와 맞먹는 거대한 면적이다. 또한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YouTube)에서 코에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고 있는 거북이의 동영상을 접한 적이 있다. 길이가 제법 긴 빨대가 코에 박혀 있었고 그걸 집게로 빼내는 장면이었는데 매우 끔찍하였다. 바야흐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급세기 인류의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이미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난 5월 EU집행위원회는 2021년까지 면봉,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제품 10종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 규제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승인될 경우 EU회원국 모두는 1회용 플라스틱제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처리 및 비용 분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태평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섬 ‘쓰레기섬’

▶
 코스타리카(Costa Rica) 해안 지역을 탐장하던 텍사스 해양 생물학자 연구팀이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의 콧구멍 안에서 10cm 가량의 빨대를 제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해역도 예외가 아니듯 연간 약18만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이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4배가 넘는 광활한 바다면적과 1만5천km에 이르는 복잡하고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할 때 증과부적(衆寡不敵)으로 그 실적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의하면 투기된 18만톤 중 '15년 6만9천톤, '16년 7만8천톤, '17년에는 8만2천톤 정도만 수거되었다고 하니 해양쓰레기로 인한 우리 연안해역의 오염실태는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일제 정화주간'으로 운영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에 진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매월 셋째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나아가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쌍수(雙手)를 들어 환영해 마지않는다.

우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19개 지부 및 50여 지역대(구조대, 구난대, 봉사대)에서도 평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양정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금 번 해양수산부의 정화주간에는 지자체, 해양경찰 등과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본보 사진 참조)

앞으로도 우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연의 임무인 인명구조 활동 못지않게 해양환경보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거나 오염된 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인류에게 재앙이기 때문이다.



▲ 각 지역 구조대의 수중정화활동 모습



| 총재동정 |

신정택 총재, 글로벌리더 25인에 선정



▲ 앞쪽 왼쪽 세 번째 신정택 총재 (사진출처: 매일경제)

지난 5월 8일,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가 '2018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25인에 선정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선정식에서 기념패를 받았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1978년 부산에서 세운철강을 창업한 신정택 총재는 부산, 창원, 울산, 포항지역에서 자동차, 가전, 발전설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냉연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G전자, 두산중공업 등으로 매출의 70% 이상이 대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연간 78만 t 이상 냉연철강제품을 가공·판매해 연매출 6,600억 원을 기록한 세운철강은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 국제해양안전대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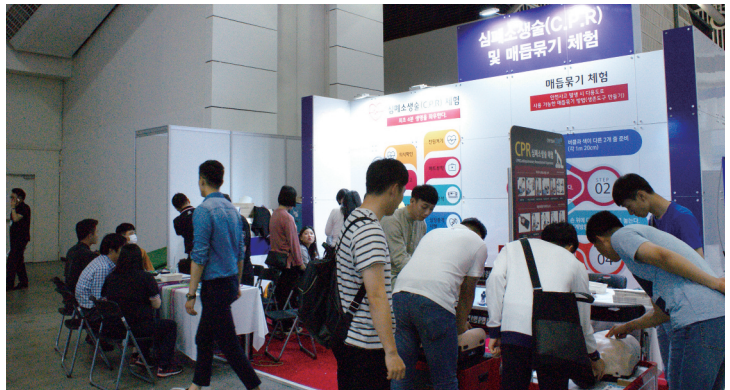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8국제해양안전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회 6명의 직원들과 서울 및 인천지부 소속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매년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해양안전전시회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해양·안전 및 조선관련 15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안전·레저관, 특수장비관 등 6개관으로 구성, 해양·안전장비와 중소조선 및 워크보트, 친환경 선박설비 및 선박지원관, 여객·항만 소요장비 및 비품 등이 확대 출품되었다.

우리협회는 전시장 내 해양안전체험존을 운영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파라코드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22일(금)에는 청소년들의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해양안전 도전 골든벨’ 대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우리협회 김윤섭 교육연구본부장은 “해양안전문화



▲ 체험(파라코드 만들기, 심폐소생술)행사를 위해 협회 부스에 방문한 관람객들

저변확대를 위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놀이안전, 생존수영과 같은 실질적인 해양안전 교육을 위해 이와 같은 기회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협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해양안전 엑스포에도 참가하여 생존수영, 구목뗏목, 구명보트 등 실제 수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 우리협회 민흥기 이사장이 개막식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하고 있다.



▲ 최수근 강사가 관람객들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북태평양 6개국 대규모 연합훈련 성료

지난 6월 7일, 부산 앞바다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NPCGF: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연합팀이 대테러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태평양 해양경찰 포럼(NPCGF)은 2000년 12월 북태평양지역 6개 국가(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의 국제성 범죄 예방과 단속, 선박항행안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창립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제안으로 2006년부터 매년 각 회원국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해상훈련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파견 함정, 항공기, 특공대 등 합정 9척(한6, 일1, 중1, 러1)과 소형고속보트 11척(한7, 일1, 중2, 러1), 항공기 5대(한3, 일1, 러1), 테러진압팀 20여명(한10, 중7, 러4)이 투입돼 테러와 대규모 해상 사고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은 북태평양 회원국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로의 훈련 기법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회원국별 수색구조 정책 및 노하우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가진



▲ 대한민국 해경 특공대의 엄호 아래 러시아 특공대원들이 선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협회에서는 민흥기 이사장, 윤종휘 부총재, 임준택 이사가 현장에서 훈련을 참관하였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 6개국 해양경찰 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를 한 차원 높이고,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선진 해양구조 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였다.



▲ 대한민국 해경 특공대가 워터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한 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 선원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협력기관 현장 합동훈련(FTX) 실시

지난 5월 24일, 우리협회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함께 민·관·군 수중수색 협력기관 현장 합동훈련(FTX)을 실시하였다.

실제 합동 구조작전에 대비해 기관별 최신 수색구조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점검 등을 위해 진행되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훈련에는 우리협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중특단 박종철 단장, 해군55전대 장진홍 전대장, 경남동부지부 소속 구조대원 15명, 중특단 20명, 해군SSU 17명 등 총 50여명이 훈련에 투입되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전용 무선통신망(TRS)을 활용한 수중수색구조 합동작전 지휘 훈련(CPX)를 실시하였으며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에서 현장 합동훈련(FTX)을 진행하였다. 금번 훈련은 진해 해안에서 전복선박(대원호) 내 고립자 구조를 위한 SSDS(표면 공급식 잠수), Scuba(스쿠버 잠수)를 통한 수중탐색, 수중수색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훈련을 위해 올해 1월에 건조가 완료된 해경 최초



▲ 잠수훈련을 위해 준비중인 경남동부지부 소속 대원들

의 잠수지원함(D-01)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잠수지원함은 수중구조능력을 한층 강화시켜 수심 100m까지 탐색이 가능한 무인원격조종로봇, 4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감압챔버 등 최신 수색구조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박종철 단장은 훈련장평을 통해 “수중수색 합동훈련이 기관단체 간의 구조기법 공유 등 전복선 수중수색구조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군 합동구조훈련 및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수중수색구조훈련



▲ 단체사진

울산지부 협회장이 · 취임식

우리협회 울산지부는 지난 4월 25일 울산해양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울산지부 협회장이 ·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배진환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하여 본회 민흥기 이사장, 울산지부 소속대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였다.

지난 3년간 울산지부를 이끌어온 박상호 전 협회장은 울산광역시 지원산업인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을 3년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초, 중, 고등학교 및 기업체에 물놀이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120회 이상 진행하며 울산시민의 안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각 지역대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하여 단합을 이끌어 오며 울산지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왔다.

금번에 취임하는 최영목 신임 협회장은 현재 채용건축 대표로 울산지부 아라봉사대 소속으로 활동해 오면서 해양구조 및 정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며 한가정 돕기 봉사 자문위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라이언스 활동 등 지역사회 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전 협회장으로부터 지부기를 건네받은 최영목 협회장은 “지난 울산지부가 활동해 온 업적이 이어 해양구조,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사고예방 및 교육 등을 통해 바다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본회 민흥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해상에서의 튼튼한 민·관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오늘의 이 행사야말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특별하다”며 “앞으로 울산 인근해역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활동 또한 더욱 더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며 취임식을 축하하였다.



▲울산지부 협회장이 · 취임식 단체기념촬영



▲ 지부기를 흔드는 최영목 신임 협회장



▲ 배진환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대원들



전남동부특수구조대 발대식

지난 5월 12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는 우리협회 전남동부특수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 선언문 낭독중인 우지웅 전남동부특수구조대장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조병중 전남동부지부 협회장, 여수해경 경비구조과 전성권 과장, 여수시 어업생산과 박석준 주무관, 만성리 해수욕장운영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전남동부지부 소속 임원 및 회원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축하하였다.

전남동부특수구조대 초대 대장으로는 전남동부지부 소속 회원으로서 해양안전을 위해 구조, 교육, 환경정화활동 등 다방면으로 공헌해온 우지웅 특수구조대장이 임명되었다.

금번에 발대하는 특수구조대는 총 17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잠수 기술은 물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 등 전문적으로 구조 활동 경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원으로 구성되어 여수 일대 해양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출동가능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이날 행사 후, 전남동부특수구조대원들과 전남동부지부 소속 회원들은 함께 만성리해수욕장에서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 하였다.



▲ 조병중 협회장과 민홍기 이사장으로부터 건장을 받는 우지웅 전남동부특수구조대장



▲ 발대식 후, 만성리 해수욕장 수중정화 작업중인 특수구조대원들

포항구조대, 캄보디아 해군특수부대의 인명구조 및 스쿠버 교육 수행

우리협회 포항구조대는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캄보디아 해군특수부대원들에 대한 인명구조 및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위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림 해군기지를 방문하였다.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던 캄보디아 해군특수부대는 오래전부터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우방국들을 수소문 해왔으며, 우리협회 포항구조대에게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에는 정재완 포항구조대장을 비롯하여 전문 인명구조 및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한 총 6명의 대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원들은 다년간 협회 활동을 해온 전문 강사진들이다.



▲ 캄보디아 해군특수부대원과 포항구조대원들의 기념촬영

총 50명의 해군특수부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각종 영법,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익수자 수영구조법, 생존수영법, 종합구조기술법, 스쿠버 다이빙 방법 등 6일간 매일 10시간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정재완 포항구조대장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정보만 없었을 뿐, 한 나라의 군인들로 기본적인 수영실력은 매우 뛰어났다. 짧은 교육기간임에도 습득력이 매우 우수하고 집중력 또한 굉장히 높았다”며 “짧았지만 매우 보람되던 시간이었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류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구조대는 오는 7월에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수료증 전달 및 추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제2차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 해군특수부대원에게 스쿠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포항구조대원들



전국지부 및 구조대 수색구조활동

| 경남서부특수구조대, 어민 실족사고 수중수색작업

지난 4월 7일 오전 7시경, 한산면 용초도에서는 60대 어민이 미역 채취 작업을 마무리 한 후 뗏목에서 귀가를 위해 모선으로 옮겨 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실족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이 작업을 하던 부인이 오전 9시경에 신고하였고 우리협회 경남서부특수구조대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였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난항을 겪으며 수색작업은 4일간 지속되었고 총 8명의 잠수대원들과 21명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었다.

수색작업을 시작한지 4일째 되던 지난 4월 10일, 사고발생지점 근처에서 실종자가 물위로 떠오르면서 수색이 마무리 되었다.



▲ 수중수색작업중인 경남서부특수구조대원들

| 장흥구조대, 침몰어선 주인호(1.67t) 구난작업

지난 5월 21일, 장흥시 회진항에서 어선 주인호(1.67t) 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조업을 나가던 장흥구조대 소속 대원이 발견하여 구조대로 즉시 신고하였다.



▲ 침몰하고 있는 주인호를 견인하고 있는 장흥구조대원들

출동신고를 받은 장흥구조대는 2명의 잠수대원과 8명의 대원들을 투입시켜 크레인을 이용하여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였다.

고박 되어있던 주인호(1.67t)는 강풍으로 인해 묶여있는 줄이 풀리면서 좌초되어 침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지부,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 개최

지난 6월 1일, 우리협회 부산지부는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2018년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 첫 교육을 부산 가락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 해양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가락중학교 학생들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안 물놀이 사고의 취약계층인 청소년(초등, 중학생)에게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진행되었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주2회씩 운영예정이며 부산지역 초등, 중학교 27개 학교(2,808명)를 대상으로 한다. 응급구조교육은 부산지부 소속 전문강사진들이 진행하며 물놀이 안전교육은 부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에서 담당한다.

교육내용은 ▲물놀이 사고사례중심 상황대처 맞춤형 교육 ▲안전관련 시청각 교육 ▲인체모형 및 AED 활용 실습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구조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가락중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했던 부산지부 박성욱 강사는 “학생들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과 같은 교육의 기회가 점차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경주구조대, ‘선덕여왕배 여자야구대회’에서 심폐소생술 홍보관 운영

지난 4월 21일 개막한 2018시즌 첫 전국여자야구대회인 제2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에서 우리협회 경주구조대가 이벤트로 심폐소생술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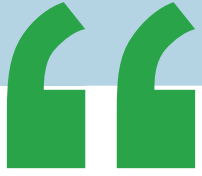
선덕여왕배 여자야구대회는 경주시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전국에서 33개팀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이다.

경주황성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우리협회 경주구조대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출입구 근처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33개팀 야구선수들과 경기를 관람하러온 관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고,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주구조대의 심폐소생술 홍보관 운영은 지역신문 등에도 보도될 정도로 대회 당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경주구조대장은 “행사장에서 호응이 클수록 우리 대원들의 보람도 함께 커진다”며 “경주구조대는 앞으로도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는 선수들



안전을 부탁海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 '청소년 선상안전체험교육'

인터뷰 _ 부산구조대 김경진 대장



▲ 부산구조대 김경진 대장이 선상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2014년 4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4년째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 교육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시는 올해 15개 중학교, 47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바다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청소년 선상안전체험교육은 선박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과 강도를 높이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2015년부터 선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를 유도하며 교육을 진행해왔던 우리협회 부산구조대 김경진 대장을 통해서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았다.

→ 전국 유일의 지자체 선상안전교육

부산시는 지난 2015년 4월말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수산자원과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 부비호(374t)를 활용해 선상안전체험교육을 시작하였다.

부비호(374t)는 길이 4.1m, 폭 8.3m, 전장 57.9m에 총 60여명이 탑승 가능한 어업 지도선이다. 승무원 15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50명 정도의 학생 수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의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최적의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선 내 적절한 교육 공간의 확보 및 인원수용이 어려워 차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부산에서의 선상 안전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부비호(374t)에 승선하고 있는 부산 신덕중학교 학생들

첫 시작 후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교육은 3년간 총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왔다. 이미 2018년도 교육은 연초부터 학생들의 신청이 꽉 차있는 상태이다.



▲ 김경진 대장의 지도하에 현장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 ‘입고, 던지고, 외치고’ 실제 재난 현장처럼...

우리협회 부산구조대는 부산시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좀 더 현장감을 줄 수 있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선상안전체험교육에서는 구명부환 사용법 및 비상탈출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 교육은 부산구조대 김경진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운항중인 부비호의 현장감이 더해져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끈다.

교육에 생동감을 불어넣고자 부산구조대원들이 비상탈출 시연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하고 날씨에 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연에 학생들의 웃음기도 잠시 사라진다. 잔뜩 굳기가 든 학생들은 김경진 대장의 지도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부환을 바다로 던지며 힘차게 구호를 외친다.



▲ 직접 물속에 뛰어들며 비상탈출 상황을 구현하고 있는 부산구조대원들

➔ 현장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지난 5월 18일, 부산시 신덕중학교 동아리 학생 30명이 선상안전체험교육을 위해 부비호에 승선하였다. 약 2시간에 걸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선생들 또한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다.

신덕중학교 김원숙 선생은 “실제로 참여하는 이번 교육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선생님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이어서 더욱 좋다” 며 이러한 현장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햇수로 4년째 이 교육을 담당해온 김경진 대장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이 제법 크다. 영상이나 이론수업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안전 매뉴얼을 몸으로 익히는 것과 같다” 며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보람도 보람이지만 사명감도 막중하다. 이러한 교육의 장이 더욱 많이 마련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현재 부산구조대는 선상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해경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실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부산지역 초·중·고교 27개 학교 2,808명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을 부탁 海

여름 맞기로 분주해진 울산지부의 해양정화활동

계절변화로 분주해진 이맘때, 전국적으로 우리협회 대원들 역시 여름맞이 준비로 바쁘게 움직인다. 5월 31일 '바다의 날'과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바다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봉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해 본다.

울산 일대 바다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있는 울산지부는 지난 3월부터 올해의 해양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추운 겨울을 깨고 나온 초여름의 바다는 부유물과 폐어구 등 각종 해양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으며 울산지부 대원들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 슬도 방파제에서 어선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울산지부 대원들

➔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지난 6월 3일, 당초 계획에는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해양정화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사 4일전,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였다. 바로 울산시민들이 슬도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울산 슬도공원은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낚시 장소이다. 하지만 낚시와 관광지로 유명해 진 반면에 방문객들의 의식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슬도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였고, 지역언론에도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해양정화활동 당일, 100여명이 모인 울산지부 소속 대원들은 어선, 크레인,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상의 부유 쓰레기 수거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잠수대원들은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 들며 수중폐기물들을 걷어 올렸고, 육상에서는 공원 근처에 버려지거나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무더운 날씨에 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 슬도공원 낚시터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중인 대원들



이날 수거한 쓰레기양만 4톤을 훌쩍 넘는다. 일요일이었던 이날은,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던 시민은 “치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네!” 라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분노하고, 치우는 대원들의 노고에 더 없는 감사를 표하였다.

➔ 30명의 잠수대원들, 100여명 대원들의 노고

울산지부는 창립 후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양정화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 해마다 평균 10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 해양정화활동은 현재 10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참여하면서 대규모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직업, 나이를 불문하고 힘을 모아 울산바다에 희망을 불어 넣고 있다.

다이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울산지부는 매년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할 때면 30명 이상의 잠수대원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생포, 방어진항, 일반부두, 달포부두 등을 주기적으로 돌며 주말시간을 할애한다. 트럭, 잠수장비 그리고 맨손을 이용하여 부두 근처에 버려진 온갖 해양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한다.

잠수대원들은 시야도 확보하기 어려운 오염이 심한 바닷물 속에서 폐어망, 플라스틱, 고물 타이어 등을 직접 물 밖으로 건어내며 바다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염이 심각한 방어진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잠수대원들

➔ 전국 각 지역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

울산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구조대원들은 매주 주말을 할애하여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해양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지자체, 해경,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바다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수중정화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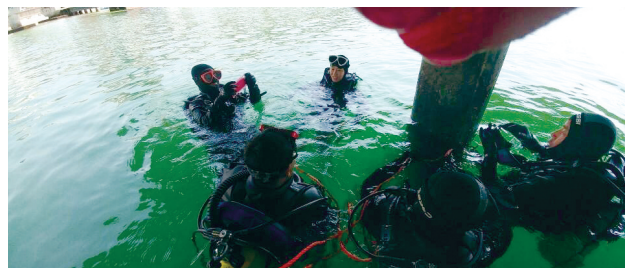
각 지역대들의 활동을 사진을 통해 알아본다.



▲울진구조대



▲해운대구구조대



환경을 부탁海



▲경남서부지부



▲통영구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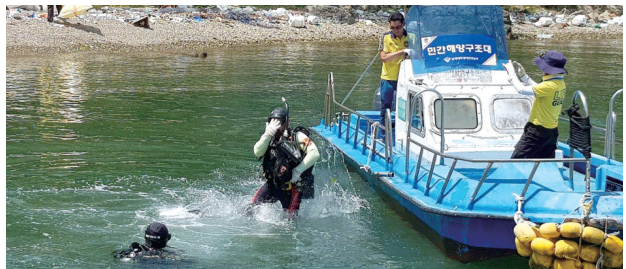
▲경주구조대



▲마산구조대



▲경남동부지부



국내뉴스



올해에는 1인당 1가지 이상 해양레저 배워보자!

해수부, 전국 11개 해양스포츠대회와 80개 무료 체험교실 운영 등 적극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규모의 11개 해양스포츠대회와 15개 시·도의 80개 무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 대회가 개최된다. 6월 2일부터 3일까지 한강(이촌)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장관배 전국 카누·드래곤보트대회'를 시작으로, 새만금컵국제요트대회(6.21~24, 부안), 전국해양스포츠제전(8.16~19, 속초), 2018년 아시아드래곤보트대회(10.6~7, 경인아라배길) 등 연간 총 11개 대회를 지원한다.

오는 8월 개최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이다. 이번 제전에서는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 3종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번외종목 4종에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게 될 예정이다.

※ 카이트보딩: 카이트(연)와 서핑(웨이크보드)을 결합한 신종 해양스포츠

올해 29번째 개최되는 '해양소년단 리갯타 대회*(8.1~4, 상주보)'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5개국 22명을 비롯한 한국해양소년단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하여 고무보트, 카누, 드래곤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전국해양소년단종합축제: 해양기능경기대회 + 레저스포츠체험 + 국제교류활동 등

한편, 요트, 카약 등 1인 1레저 학습을 위해 전국에 지난해(64개) 보다 확대된 80개 무료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총 70만 명에게 해양레포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체험 장소와 종목은 해양레저 누리집(www.ole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또는 전화(1577-2281)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체험과 관광, 생존수영을 하나로 묶은 복합해양레저체험교실 1곳을 추가하여 전국에 3곳(울주 진해해수욕장, 낙동강 상주보·낙단보)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단위 해양레저 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정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지난해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 결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올해에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양스포츠 대회와 무료 체험교실에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총 7천 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11월) 결과,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참가자가 93%를 차지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뉴스



이번 여름휴가, 어느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까?

해수부, 전국 260개 해수욕장 개장일정과 주요 행사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올해 여름 개장시기를 확정하고, 6월 1일(금)부터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6월 1일 개장하는 곳은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부산)이다. 이어서, 6월 16일 대천(충남), 6월 23일 협재(제주)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고, 송이도(전남)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1일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원의 광암 해수욕장은 2002년 폐쇄 이후 16년 만인 오는 7월 7일부터 재개장 예정이다.

21시 이후까지 야간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51개소이다. 경포, 주문진 등 강릉시 9개 해수욕장과 낙산, 하조대 등 양양군 21개 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할 예정으로 하루 개장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에서는 공군 블랙이글 에어쇼(강릉 경포), 모래조각 경연대회(태안 몽산포), 부산바다축제(부산 해운대), 울산조선해양축제(울산 일산), 국제불빛축제(포항 영일대)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콘서트, 가요제,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조개, 오징어 잡기 등 체험행사, 해변가에서 열리는 발리볼, 축구, 마라톤, 복싱, 프로격투기 등의 대회도 열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지난 5월 29일 지자체와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장비와 안전인력 운영 계획을 집중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개장기간 동안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오정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 여름 개장하는 260개 해수욕장은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아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음주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260개 해수욕장별 개장기간, 부대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뉴스



올해 3만 명의 어린이 · 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가르친다

5~9월 30,452명 어린이 · 청소년 대상 교육.. 전국에 무료 교육장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생존수영의 대국민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30,452명의 어린이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진 뒤 구조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물에서 버티는 생존기술로, 전문 강사로부터 2~4시간 교육 받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교육도 평상복을 입고 실전처럼 진행되며, ▶ 물과 친해지기(공포심 없애기) ▶ 물에 뜨기(누워서 뜨기), 호흡법(음파호흡*), ▶ 체온유지법(웅크리기) 등을 익히게 된다.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 구명부환 활용법 ▶ 심폐소생술 등도 함께 배운다.

※ 물 위에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물 속에서 코로 내뿜는 호흡법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33,3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간 생존수영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23,378명)보다 30.3% 가량 많은 30,452명의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어린이 중심의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9~15개소)하고, 권역별로 생존수영 전담 교육장(3개소)을 지정 · 운영한다. 또한, 전국 강 · 바다 10개소에 실전형 체험장을 운영하여 생존수영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은 경남 거제 애광학교(6.4~8), 강원 양구초등학교(7.2~13) 등 전국의 초 · 중 · 고 15개 교에 이동식 수영장(10x20x1.2m)을 설치하여 진행된다. 학교별로 평균 5~12일간(30~72시간) 총 5,352명을 대상으로 교육(1회 약 30명, 1일 3회 6시간)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과 음성 청소년수련원,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등 3개소를 생존수영 전담 교육장으로 지정하고, 이동식 수영장을 고정 배치(6~9월)하여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해양레저체험교실에 생존수영 강좌를 개설하거나 관련 대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여 약 10,2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 충남 보령 국민체육센터, 상주 해양소년단 리깃타(물 위에서 하는 경기) 대회, 속초 해양스포츠제전 등

특히, 부산 송도해양레저센터, 경북 상주보 수상센터 등 실전형 생존수영 교육 여건이 좋은 강 · 바다 10개소에서는 약 14,900명을 대상으로 구명뗏목, 구명조끼를 활용한 탈출 등 위급 상황을 가정한 실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강 형(6) : 경기 여주 수상센터, 경북 상주 상주보 ·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등

※ 바다형(4) : 부산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전남 여수 웅천해변, 삼척 해양센터 등

오정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생존수영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들이 생존수영을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생존수영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레저포털 누리집(www.oleports.or.kr)이나 전화(1577-2281)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뉴스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매뉴얼)을 제정·시행한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단체 간 활동 협이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분야나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운영되고 운영지침도 보급·시행하게 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대부분의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난현장에 유입되는 모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배분·조정한다.

자원봉사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현장통제 안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모집·배치를 일원화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선호분야·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특정분야·시간·구역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와 매일 자원봉사활동이 종료된 후 조정회의를 거쳐 그날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조정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은 재난현장에 유입되는 자원봉사단체·개인의 체계적인 배분과 활동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지원단 설치시기는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증가하여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하였고, 장소는 안전하고 가시성이 좋으며 차량·장비·인력 등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요에 따른 모집과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주체와 내용을 명시하였고 지역대책본부(또는 통합지원본부)와 정보 공유 및 지원단 행정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배치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정부의 재난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내뉴스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피해서 쉬엄쉬엄 가세요!

잇따른 폭염특보로 산행 및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폭염특보가 잇따르고 있어 산행 등 야외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발표된 폭염특보는 총 652회로 연간 130회 정도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고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일 대구, 광주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 ※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등산로에 수풀이 우거져 산행 시 온열질환* 발생과 조난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

※ 온열질환: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의 증상으로 나뉘며(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12~'16)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며, 6월에는 608건 정도가 발생하였다. 등산사고는 실족과 추락이 33%(2,413건)로 가장 많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7%(1,211건), 개인 질환에 의한 사고도 11%(836건)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운 여름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을 평소보다 여유롭게 잡고 한낮 더위에는 쉬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 산행은 평소 보다 빨리 지치고, 몸에 무리를 줘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강한 햇볕 아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을 심하게 움직이면 현기증(열피로)과 열경련이 발생하기 쉽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지속되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가급적 피한다.

- ※ (일사병)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기 쉬움
- ※ (열사병)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움

특히,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느끼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으로 바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폭염에 무리한 야외활동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몸을 조이는 옷 등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병원에 가도록 한다. 또한, 여름철은 습한 날씨와 높은 온도로 음식이 쉽게 변질되기 쉬우니 도시락 등 음식물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폭염영향정보: 폭염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요령을 폭염위험수준별로 기상청 모바일 앱(m.kma.go.kr)과 날씨누리(www.weather.go.kr)제공(6월1일부터 시범 운영)

한성원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폭염특보가 잇따르고 있어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 한낮의 땀별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행정안전부]

협회교육안내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기간 : [주말반] 2018. 6. 30.(토) ~ 7. 22.(일) (8일간_64시간) / 09:00 ~ 18:00
[주말반] 2018. 8. 04.(토) ~ 8. 26.(일) (8일간_64시간) / 09:00 ~ 18:00
- 교육인원 : 과정별 40명(신청서 제출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회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45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 최초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07호(강의실) 및 수영장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하신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보충교육 일정은(미 이수자 수 및 강사섭외 등) 사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일정을 현재 공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부산본부 (T. 051-714-3695,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2018년 3차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주말교육반 일정표

○기 간 : [3-1차] 2018. 6. 30.(토) ~ 7. 22.(일) (8일간_64시간) / 09:00 ~ 18:00

[3-2차] 2018. 8. 04.(토) ~ 8. 26.(일) (8일간_64시간) / 09:00 ~ 18:00

○장 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07호(강의실) 및 수영장

연번	일자	시간	교육내용	장소	시간
1	6/30(토)	09:00~11:00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안내 및 수상일반	강의실	2
		11:00~13:00	수상구조사의 임무, 책임, 자질, 정신		2
		14:00~16:00	재난상황의 이해,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2
		16:00~18:00	수업과정 소개 구조영법, 수상일반	수영장	2
2	7/1(일)	09:00~11:00	수상구조법, 선박안전법 등	강의실	2
		11:00~13:00	유·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체육시설 등		2
		14:00~16:00	기본응급처치(이론)		2
		16:00~18:00	기본응급처치(실습)		2
3	7/7(토)	09:00~11:00	기본응급처치(실습)	강의실	2
		11:00~13:00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2
		14:00~16:00	외상환자 응급처치(실습)		2
		16:00~18:00	응급의료 장비사용(실습)		2
4	7/8(일)	09:00~10:00	응급의료 장비사용(실습)	강의실	1
		10:00~13: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수영장	3
		14:00~16:00	구조영법(잠영, 입영, 스컬링, 중량물)		2
		16:00~18:00	구조영법(잠영, 머리들고자유형, 평영, 트러젠)		2
5	7/14(토)	09:00~11: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수영장	2
		11:00~13: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2
		14:00~16: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2
		16:00~18:00	종합구조술	강의실	2
6	7/15(일)	09:00~11:00	구조영법(잠영, 머리들고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장	2
		11:00~13:00	선상안전 비상대응		2
		14:00~16:00	선상안전 비상대응		2
		16:00~18:00	로프사용법, 매듭법	강의실	2
7	7/21(토)	09:00~10:00	구조영법(잠영, 머리들고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장	1
		10:00~13:00	부상구조법(골절, 척추, 경추손상, 스파인)		3
		14:00~16:00	구조영법(잠영, 입영, 스컬링, 중량물)		2
		16:00~18:00	로프사용법, 매듭법	강의실	2
8	7/22(일)	09:00~11:00	로프사용법, 매듭법	강의실	2
		11:00~13:0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성인, 영아), 선상안전		2
		14:00~16:00	구조영법, 수상구조, 장비구조 등 반복숙달	수영장	2
		16:00~18:00	구조영법, 수상구조, 장비구조 등 반복숙달		2

※ 매 교육개시 전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교육으로 이월

협회교육안내

2018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0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협회교육안내

2018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간 : 2018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3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육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2018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간 : 2018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육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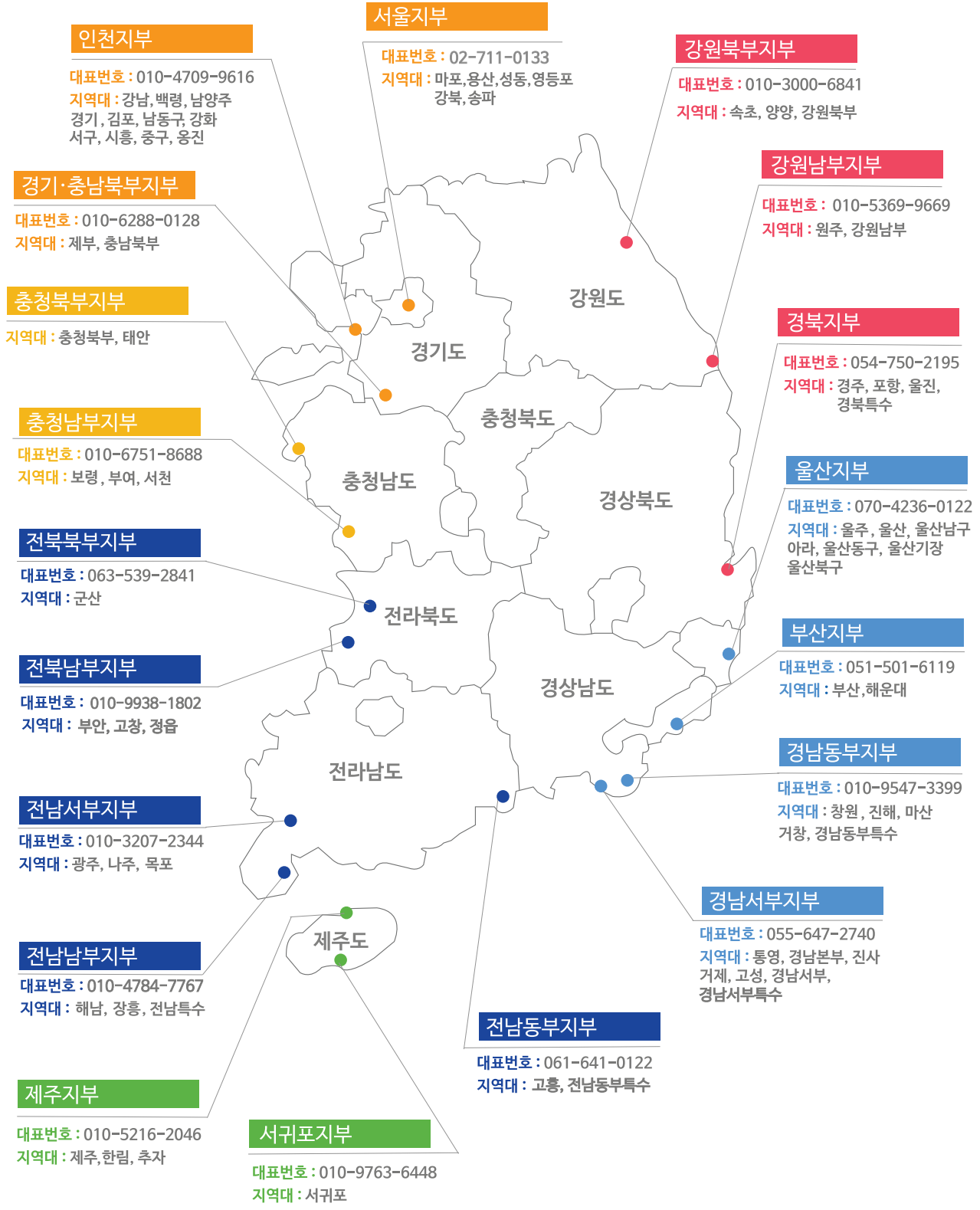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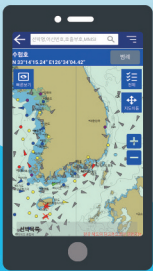
※ 지역대 :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

수협조업정보알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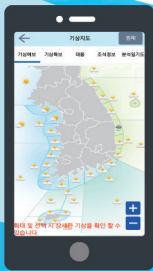
어업인에게 안전한 조업활동을 안내하고
맞춤형 조업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꿀 정보**
놓치지 마세요.



조업위치



기상, 태풍, 조석정보



조업정보

설치 방법

- 1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실행
- 2 “수협조업정보알리미” 검색
- 3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 설치
- 4 관할 어업정보통신국 자선등록 신청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